

2002년 민족동아 총여학생회 상반기 평가서

수신: 민족동아 총여학생회
발신: 민족동아 여학일군
용도: 상반기기를 평가하고 하반기를 잘 살기 위해서

0. 들어가며

상반기 평가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난 상반기기를 돌아보면 참 많이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상반기 평가를 늦었지만 힘있게 진행한 만큼 이후 한계점들은 고쳐가며 성과는 이어나가면서 하반기 사업을 학우들과 함께 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니다.

1. 영역별 평가

(1)조직상상영역에서의 평가

1)학습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일군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습의 정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학습에 임하는 사람들의 학습참여 의지가 부족하였다. 또한 주체의 의지도 부족하였다. 그리고 처음 결정하였던 소조가 중간에 일군들이 나가게 되면서 변하게 되어 소조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소조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언학습과 여성신문 기사 학습을 진행하면서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꼈던 학습을 쉽게 느끼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진행할 때 틀릴 때까지 읽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학습에 대한 재미를 유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명언학습에 나오는 단어가 평상시 쓰이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에 있어 읽기에 조금은 불편하였습니다. 평상시에 일군들이 학습이 되어 있다면 명언학습은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 경영대 학습을 맡은 주체에 대해 하방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경영대 학습에 대해 신중을 쓰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총여학생회에서 단위 여학생회 학습에 대해서 좀 더 담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습에 대한 총평>

개인적으로 다들 의지는 보였으나 꾸준히 잘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조도 바뀌고 주체가 없어지면서 소조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 경영대 여학생회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 담보가 없었습니다. 학습은 열의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전만 일군들의 학습에 대한 열의열정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 과제: 1.소조를 명확히 해서 변동되지 말자.
- 2.정해진 학습은 결사관철하자.
- 3.경영대.학습지도물 하자.
- 4.일군 1소조를 가지자.

2)간담회

①자주적여학생운동론 간담회(주체 세우기)

-동아리 연합회를 취소하고 자주적 학생회 전 단위 진행

자주적 여학생 운동론을 자주적 학생회가 세워진 전 단위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내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여학생 운동 뿐 아니라 총여학생회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 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었습니다. 공대학생회는 단체 운영의 속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성과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를 다시 만나서 후속 사업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시적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향후를 바라볼 때 잠재적 성과는 매우 높습니다. 성과로는 경영대 여학생회 건설과 자대 여학주체가 건설된 것입니다.

②부경여대협 건설 간담회

-공대, 사회대, 인문대, 생명대 진행

부경여대협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군들이 인식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일군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여대협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오히려 부경여대협 조직에 대한 관심보다는 민족동아 총여학생회에 대한 관심으로만 집중되어,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한 모든 단위가 지난 2년 동안의 공백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록 고민의 수위가 높지는 못하였지만 여대협에 대해 총여학생회만의 조직이 아니라 전 단위와 함께 고민하면서 낮은 수위지만 고민하는 성과점이 있었습니다.

③과 간담회

핵심과(무역, 경영, 경영 등)를 선정하여 간담회를 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자주적 학생회 일군들이 아니라 일반 과 집행부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에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고 대부분의 단위에서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단대 간담회에 비해 총여학생회에서도 결박성이 부족하여 끊임없이 달라붙지 못한다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과 선정에 있어서도 총여학생회 자체적으로도 그 근거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세우기 쉬운 것 같은 과, 자주적 학생회가 건설된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한계가 많이 따랐습니다. 사전에 과 회장을 만나 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여 과에 맞는 사업까지 준비해서 들어가는 준비의 철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에서 준비해 가는 내용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며 여학생부 건설의 결박성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간담회를 계기했던 시기상의 문제도 간담회가 제대로 성과있게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5월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실제 대부분의 과 집행부의 체제가 안정화 된 상태에서 새로운 부를 건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과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늦어도 3월안에 과 간담회는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담회 총평>

간담회 사업을 전체적으로 성과있게 진행하였으나. 그러나 가시적 성과를 많이 내어 오지 못하였습니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해 끝까지 후속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단위를 만나 나가며 총여학생회와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담회라는 것이 시기상의 특성이 중요함에도 시기에 맞추어서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간담회에 대해 총여학생회에서 깊게 논의하고 목표를 세워내는 과정이 많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되지 못하였다.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서 체계적으로 점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학기 초 조직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였고 이후에 부회장이 뒤늦게 맡으면서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조직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다 같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범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잘 살려 사업을 잘 하자.

- 과제 : 1. 사전준비(내용, 과정의식화, 단위실정에 근간한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자.

2. 의의와 목표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상을 세우자.

3.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점검하자.

3)총여학생회 조직운영 평가

①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

중앙운영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단위가 거의 없고 있는 사람조차 시간이 맞지 않으면서 따로 총여학생회 내용을 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앙운영위가 안정성있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논의가 총여학생회만이 논의하고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대의 중앙운영위중 회 체계가 아닌 부 체계의 간부들이 부담스러워하며 자신의 지위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이 후 한명이 있더라도 중앙운영위를 책임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습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총여학생회 조·종례

조례 :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침 조례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아침생활이 잘 되지 않으면서 총여학생회 간부간의 불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정 계획을 잡고 팔동을 해야 하는데 조례가 잘 되지 않으면서 서로의 일이 공유되지 못하고 각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례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루 생활이 짜임새 있게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종례 :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조례가 잘 되지 않으면서 종례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원회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종례가 회의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제 : 조종례를 꼭 진행하자. 짧은 학습이라도 진행하자.

③회의 운영

- 전원회의, 상집회의, 주총화대회

일정이 많으면서 회의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회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상사적으로 툭툭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 진행자가 명확하지 못하면서 회의가 산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임하는 자세가 많이 나태하였습니다.

상집회의는 여학생 운동 전반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과 계획, 여학일군에 대한 고민총화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집회의에서 주로 부경여대협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었습니다.

과제 : 1. 하방에 대한 과학적 점검이 필요하다.

2. 상집회의를 꼭 진행하자.

3. 안정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자.

4)단위 여학일군에 대한 총화

경영대 여학생회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을 위주로만 주로 만나고 일상적인 만남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과 조직으로 만나지 못하고 친한 일군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고민을 나누는 정도로만 되었습니다. 상징이 되지 못하면서 상시적으로 일군 총화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대표자가 전체 일군들의 고민을 총화하지 못하였고 일군들 또한 모든 것을 대표자에게 총화하지 않았던 문제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총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5)총여학생회 하방지도 사업

하방이 정례적으로 되고 총화를 잘 하자.

①구체적 대중에 대한 교양사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단대나 과 간담회, 집단조례교양, 여간부학교 등;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여대협 출범식에 동아대 참가자 전원이 결합하는 모범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과나 학회, 동아리를 발동하고 정치사업하여 사업에 대한 조직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②총여학생회 사업에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결합되었고 이를 통해 총여학생회가 그만큼 강화되고 있는가?

- 전체 일군들이 실무가 너무 많다보니 실무에 치우쳐 무작위 학우대중의 조직화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학생회 기층이 많이 없어 조직화의 한계를 많이 느낀 상반기였습니다.

③여학생 운동의 대중화, 대중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

- 전체 여학우들을 만나기 위한 계획들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제기되는 총학생회 사업이 너무 많아 자체적인 사업을 줄여 버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동아대 여학생 운동에 대한 전망이 중요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학생 주체를 꼭 건설합시다.

6)소모임

중앙소모임으로 고민하였으나 주체가 없으면서 실제 소모임 고민이 잘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군들이 소모임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내용과 활동에 대한 세부적 계획은 있었으나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조직사상운동에 대한 총평>

여학생 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도(집단조례교양, 여간부 학교)속에서 성과점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의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투쟁을 대할 때 사람을 남길 것에 대한 고민보다 실무중심으로 진행한 것 같아 조직사업에 한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장기적 전망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면서 사업 하나하나의 성과를 내어도 긴 호흡과 계획을 가지고 이어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에는 사업이 끝나고 그 후속사업에 대한 고민이 깊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중투쟁 영역

1)6. 15공동선언 이행

중앙의 사업에 참여는 하였으나 여성의 내용을 가지고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총여성회 자체적으로 61500여학우 선언운동을 진행하고 여성과 통일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한 성과도 있다. 8.15민족통일대회에서 여성통일한마당을 진행하였다.

2) 반가부장제 투쟁

반성폭력야 주님들에 대해 생활의 피해사례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하고 학우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 선전의식화가 중요함에도 일회성으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예민한 여성주의 시각이 많이 부족하다. 전문성강화도 필요하다.

2월달에 대명동 화제사건으로 자체 성매매선전전을 진행한 성과도 있다. 그리고 반성폭력강연회를 진행하여 적은 수의 사람이었지만 강연을 들었던 학우들에게는 성과가 있었다. 전여대협 성인식 설문조사를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어 부족함이 나타났다.

3) 연대 투쟁

- 연대단체에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하여 오히려 연대단체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일상적 연대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연대사업을 대할 때 헌신적이지 못하고 많이 부담스러워 하였다.

① 3.8 여성대회

전체대회를 조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 인문대, 생명대 일군들이 함께 결합하는 성과가 있었다.

② 사하구 통일 한마당

이후 진행은 총학생회와 함께 하였지만 준비초기 과정에서 사하여성회와 계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가능하게 하였다.

③ 농활

내용준비가 여농과 함께 진행되지 못하고 가서 공유하는 정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농활기간 중 성폭력 사건도 발생하였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연대의 관점을 가지고 잘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평가사업에 있어서 성과와 경남도여농 한마당에 참가하여 여성농민들과 연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성과가 있었다.

④ 여성의 정치 세력화

전반적으로 일군들이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과제: 1. 일상적으로 연대하자.

2. 부담을 갖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고 실천하자.

<대중투쟁 총평>

우리의 전문성을 많이 강화하여 전체 투쟁에 여성의 내용으로 결합하자. 총여성회 자체 투쟁의 흐름을 잘 만들어가자. 투쟁의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여학우들의 의식 지형에 대해서 민감하자.

3. 부경여대협 건설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성과점

부경여대협 건설은 의광고민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조직을 올바르게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문제점: 내실있는 고민총화가 되지 못하였다. 명확한 의장의 지휘와 역할에 대해서 두 조직의 공유가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도사업을 조직 대 조직으로 해야한다.

성과점: 민중이 주는 학점으로 부경여대협 조직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총학생회 상집 논의를 통해서 결의하였다.

총여성회 결의를 통신으로 힘있게 총화하였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 공간에서 여대협에 대한 교양을 진행하고 중앙운영위들이 힘있게 결의하였다.

부경여대협 지도력 구축을 위한 단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여학일군 학교를 통해 여학일군들이 함께 부경여대협 건설을 힘있게 결의하였다.

정책 총론

민족동아 곳곳을 다니며 여학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1만 여학우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에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과연 뭐하는 곳이나? 물어오는 세대기서부터 올해는 또 무슨 공약으로 나오느냐는 친구들, 그리고 총여학생회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나고 냉소적인 반응을 해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만나기 전엔 몰랐습니다.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학우들의 목소리, 학우들의 생각 이제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알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적 총여학생회 건설! 그 하나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총여학생회 건설을 시작으로 1만 여학우와의 **경쾌한 소통**을 시작합시다!!!

1만 여학우들의 경쾌한 발걸음!!!

새로운 출발 속에서 우리의 포부, 희망을 한가지씩 담고, 학우들을 다시 만납시다.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이남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특히 우리 여대생들은 많이 힘이 듭니다.

어디를 가나 맘 편히 발걸음 다닐 수도 없고,

여자라서...라는 못난 콤플렉스에 빠져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하며

취업이라는 관문 앞에 여자라는 이유로 번번히 좌절해야 합니다.

무서운아버지, 오빠, 혹은 남동생의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고 결혼해서는 남편, 시아버지, 아

들에게 다시 눈치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여자의 인생입니다.

여자라서 우리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거운 한걸음, 한걸음을 떼어내면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여자라서 너무 좋아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세상’ 만들어 보자고

민족동아 1만 여학우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만들어 나가자고!!!

1만 여학우들의 경쾌한 목소리!!!

여학우들의 수다!!

침묵은 더 이상 금이 아니다. 할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

성에 관한 이야기들,

가부장적인 우리집 이야기를,

권위적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군사주의에 물들어 있는 남자선배에 대한 얘기들을,

왜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앞장서야 하는지를,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를,

왜 1년에 3만이나 되는 여자태아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하나씩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하지만 이런 얘기 혼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총여학생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웃고 울고 그리고 용기있는 도전까지...

사적인 것이 바로 정치적인 것입니다!!!

학우들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 그 속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1만 여학우의 경쾌한 만남

만남,

우리에게 만남에 대한 소중한 기억 한가지가 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두 정상외 만남...

그 만남은 6.15 공동선언이라는 귀중한 통일의 이정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있던 남북관계를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소중한 만남으로 이제 우리는 통일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럴 것입니다.

1만 여학우와의 경쾌한 만남 그 속에 내 맘 같은 총여학생회, 내 집 같은 총여학생회로

학우들 가슴속에 자리잡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세상도 여남평등도 이모든 것 학우들과 경쾌한 만남 속에 이뤄내겠습니다.

1만 여학우의 경쾌한 발걸음

1만여학우의 경쾌한 목소리

1만여학우의 경쾌한 만남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총여학생회

1만 여학우의 경쾌한 소통 자/신/만/만

18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안운효주, 노진은경과 함께 하는 사람들

정책각론

<6·15공동선언 이행 영역>

어느 해보다 여성들의 통일을 위한 발걸음은 가벼운 해였습니다.
2002년 남북 여성 통일대회, 계속 되었던 여성들의 만남을 통해서 멀게만 느껴지던 통일이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 왔습니다.
여성이 통일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단된 이남의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 여성이 받는 피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군사주의문화, 폭력주의, 힘에 관한 문화 남성중심으로밖에 갈 수 없는 현실들이 다 분단으로 기인되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여성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이라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통일에 앞장섭시다. 6.15공동선언 이행에 전면으로 나섭시다.
2002년의 성과를 이어 2003년, 6·15 공동선언 3주년이 되는 해, 바로 승리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살아갑시다.

★6·15 3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6·15 기념주간 설정

6.15 공동선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통일의 이정표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가슴깊이 새기고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한걸음씩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여학우들의 가슴속에 6.15 공동선언을 새기고 함께 통일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학우들의 가슴속에 공동선언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다양한 선전, 거리전을 통한 만남을 갖도록 합니다.

▷ 이북여성과 민족동아 1만여학우의 경쾌한 만남

이북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민족동아 여학우의 모습을 인터뷰와 함께 찍어서 전시하는 장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이북여성들,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사진들을 전시하고 민족동아 여학우들과 함께 6.15 공동선언에 대해 허심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북여성의 모습, 민족동아 여학우의 모습, 과연 누가누가 더 예쁠까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선이 효순이의 한을 풀어 줍시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저희나라의 속국인지 알고 땡땡거리며 살아가는 미국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미선이, 효순이를 죽여 놓고도 제대로 된 사죄의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오만하게 살아가

는 주한미군들이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없이 서명자 수만 1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중,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쳐쳐두고 뛰어나와 진상규명, 부시사과를 외치며 하고자 했던 일!
우리가 미선이, 효순이의 한을 풀어 줍시다!!!

▷ 여중생 시민법정 민족동아 배심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시민의 힘으로 진짜 처벌을 받아야 할 놈이 누구인지 가려봅시다. 미선이 효순이의 한을 풀기 위한 시민 법정으로 달려갑시다.
민족동아 배심원 5000명을 모집합니다.
현재 두 명의 미군병사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법정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민족동아 배심원들은 이들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아니 반드시 미국에 죄값을 치루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름 기지촌활동을 공개모집을 통해 대중적으로 성사해 내겠습니다★

기지촌은 성매매문제, 성폭력문제, 인종, 민족, 지역, 계급, 군사주의 등 여러 가지 모순들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지촌 활동은 말 그대로 기지촌 지역에서 벌이는 활동입니다.
기지촌 지역, 기지촌 여성, 기지촌 어린이까지 모두 우리 민족의 문제로 바라보고 기지촌활동을 통해서 기지촌 여성, 그리고 우리 여학우들에게도 서로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동아 여학우의 용기 있는 도전!!! 여름 기지촌 활동 함께 진행합시다!!!

<사회 민주화 영역>

★호주제 철폐★

민족동아 여남평등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안운효주, 노진은경과 함께하는
민족동아 1만 8천 학우의
*부모성 함께 쓰기 생활 문화 운동

신생아의 여남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이 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남아선호는 고질병이 되었다. 1년에 3만 여명의 여자태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되는 반인륜적, 반 인권적 상황이 부끄럽게도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의 가정은 변명의 여지없는 가부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들, 손자, 딸 순으로 승계되는 호주제, 부계혈통만을 중시하는 동성동본제도, 여성이 남성에게 시집가게 되어있는 부가 입적제도,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모습,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되어 있는

제도는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는” 강고한 가부장적인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제도에서의 불평등은 사회에서 남녀불평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여성을 남성의 피부양자로만 취급되어 구조조정의 1순위에 임하지, 보조직 등 주변부 노동력으로 인정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학교에서조차 여학생은 순종적이며 순결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받으며 늘 남성의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길러져 여성 스스로의 자립감, 자아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운 좋게 태어나신 민족동아 여학우 여러분!!!
어찌던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갔던 3만여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를 운명에서 운 좋게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의 손에 죽어나가는 불행한 여아들이 없도록 진정 여남평등이 실현되는 그 날을 위하여 자신만만 선거운동본부와 함께 우리의 권리들을 찾아나갑시다.
호주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선거운동기간부터 학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발췌>
♥부모성 함께 쓰기는 ...
부모성 함께 쓰기는 1997년 3월 9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13회 한국여성 대회에서 부모성(姓) 함께 쓰기 선언자 (이여홍재 외 170명) 들에 의해 선언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한 가부장적 의식구조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남자만이 생명의 씨앗을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무지에서 출발한 법과 관습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셋째 아이의 출생 성비는 30여(남):100(여)에 이를 정도로 한국의 인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성차별은 필연적으로 국가 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로 확산되고, 이것은 민주사회를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부부의 합의에 의해 공동성(姓)을 정하거나 아이들에게도 부모 중 한 쪽의 성을 선택하여 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여자이지만 골라내어 낙태시키는 이만적 행위는 한국 이외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무시되고 소외되어왔던 모계를 살려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높일 것입니다.

♥부모성 함께 쓰기를 하려는데...
1) 후대에 갈수록 복잡해지지 않는가?
이것은 문화운동이므로 후대는 후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할머니(아버지의 아버지의) 성과 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의) 성을 막하면 글자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서갑돌과 이정갑순이 아이를 낳으면 김정하나, 김정두들이 됩니다. 어감이 나쁘면 손서를 바꾸거나 할머니성을 택할 수 있습니다.(성씨에 대한 강박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2) 열풍, 뿌리찾기가 흐려진다.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간의 열풍, 뿌리찾고 하는 개념은 여성을 전적으로 소외시킨 독선적 개념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으로 획일화된 질서는 양성중심의 문화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통한 대 잇기' 라는 요구에 기초한 강박관념 때문에 일년에 3만 이상의 여아를 감별 후 살해하는 국민정서는 계속 보존되어야 할 정서가 아닙니다. 지구촌의 한 사람. 단군의 아들 딸. 성실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국민정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성 함께 쓰기를 잘하려면?

뱃지를 항상 달고 다니며 이웃에게도 설명해줍니다. 필명이나 예명으로 늘 사용하여 생활화 합니다. 부모성을 쓴 이름으로 명함을 만듭니다. 동아리, 단체모임에서 이와 관련한 행사를 합니다. 남녀를 차별하는 훈적법 등 모든 법과 관습이 민주적이고 융통하게 변화되도록 늘 노력합니다.

★16대 대통령 선거투쟁★

역사는 항상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애국 민중들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일제 시절 민중들의 힘으로 우리는 자주 독립을 얻어낼 수 있었고, 민중의 투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중들의 힘이라면 새시대, 새조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그냥 다음 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구어 내었던 6.15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통일을 현실화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통일 대통령,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사건건 통일을 반대하고, 6.15 공동선언 기본정신마저 훼손하려는 반통일 세력에게 다음 정권을 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 반통일 세력은 차기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의 병적기록을 조작하여 군대도 보내지 않고 힘든 민중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배만 불릴 생각으로 혈안이 되어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선 안될 것입니다. 자신만만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낙선운동도 학우 여러분과 함께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이런 사람 절대 대통령 될 수 없다. 인정 못해!!!

- [맛아! 맛아! 베스트 10]
- 이복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운운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 6.15 공동선언을 반대하고, 통일을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된다.
 - 자기의 아들 친척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된다. 일제시대 검사서기 친일파 아버지를 둔 사람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안된다.
 - IMF 국민들이 힘들 때, 자기 집을 넓혀 호화빌라로 이사간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된다.
 - 법관으로 활동하면서 민족일보 사장 사형 판결 등 반민주 세력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된다.
 - 미선이와 효순이를 살해한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주장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된다.
 - 대선자금 의혹, 부정부패의 주범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된다.
 - 민중생존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내세우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된다.
 - 지역감정과 세력감정을 고취시켜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안된다.

★젊은 층의 투표참여로 통일 대통령 정치개혁을 이루어 냅시다!!!★

부계자 투표 신청사업, 학생회강 유권자 선언운동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권에 대한 환멸 등 갖가지 여론들에 의해 실상 젊은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층의 투표참여는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민족자주, 자주통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은 젊은 우리들의 힘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투표참여 그 속에서 사회를 바꿔내고 민중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길, 바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공약 정책 살펴보기★

각 당의 여성 정책이나 공약은 어떤가를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여성계에서 쟁점이 되는 모성보호법이나 성매매 방지법안, 그리고 호주제 철폐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1만 여학우와 함께 여성의 인권문제나 권리신장 문제 여남평등의 길에 아무런 고민이 없는 권위적인 시각을 가진 당에게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한 표도 주지 않는 운동을 펼쳐낼 것이고, 반대로 여성의 정책을 갖고 여성을 위한 공약들을 내는 당을 적극지지 해나갈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의 여성정책과 공약 엿보기

민주노동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율을 보이며 8.13퍼센트의 지지율로 당당하게 제 3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광역비례대표 의원 9명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 중앙위원, 전국집행위원, 부대표 등 모든 당직자에 대해 여성 30퍼센트 할당을 실시하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렇듯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에서 여성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을 대선을 전보적으로 치러내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노동당 여성선거운동본부는 일하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후퇴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와 공휴일을 줄이고 여성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제도인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노동계의 요구대로 하면 연간휴가일수가 155-185일(여성)이 되므로 이렇게 많이 쉬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고 말하면서 185일이면 1년의 반은 휴가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거짓 통계입니다. 기업주들은 전체 노동자의 12.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정규직 여성노동자. 그 중에서도 한 직장에 11년 넘게 근무한 특수한 경우를 들어 외국과 단순 비교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73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60퍼센트 밖에 받지 못하면서,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렇듯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대선을 치러낼 것입니다.

둘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문제를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는 '육아전쟁' 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아의 보육·교육을 통합하겠습니다.

국공립 유아교육시설을 확대하고, 5세에서 3세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보육·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에 2002년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여성선거운동본부는 출범식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

이 선언합니다.

- 여성의 삶을 파탄으로 모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전개한다!!
-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제도적 장애물에 맞서 싸운다!!
- 호주제 철폐, 양성평등의 문화실현, 성적소수자 보호에 앞장선다!!
-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상품화하는 사회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이같은 주장을 가장 잘 실현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진한다!!

<자주적 여학생회 강화사업>

★여학생운동 대중화★

17대 총여학생회 평가에서 가장 많이 혁신하고 올해 꼭 해내어야 할 사업이 바로 여학생운동 대중화, 자주적 여학생회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층과 단대 소모임 건설로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1만 여학우의 총여학생회로 만들겠습니다.

1만 여학우의 경쾌한 만남, 경쾌한 소통

★과여부장 건설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과에서 여학우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여학우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체육대회나 과행사에서 파견 부치고, 수육 챙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몇몇 예비역 선배들에 의해서 과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있진 않습니까?

과여학우들이 자주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더 이상 먼 곳이 아닌 과여부장과 함께 살아 숨쉬도록 하겠습니다.

▷ 과 여부장님!!!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만나요!!!

서로 잘 알려면 자주 만나야 하겠죠??

상시적인 만남 속에서 한계 논의하고 그 속에서 총여학생회가 여학우들 속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과의 '취중진담'

효주랑, 은경이랑 과에 관한 이야기를 여성문제에 관한 생각들을 나눠봅시다.

막걸리 한잔하면서 그 동안 궁금했던 서로의 목소리를 확실히 보는 것도 좋겠죠???

▷ 그녀들의 세상 엿보기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학우들이 궁금해 할 여성문제, 총여학생회 소식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나눠 보고요...

▷ 수요미디어방

수요일마다 효주랑 은경이랑 함께 여학생휴게실에서 비디오 한편 봐요!
비디오 보면서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꽃을 피워봅시다.

<학원 '자주화 영역'>

★반성폭력운동★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분단된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느 사회보다 성폭력이라는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학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사회가 사회의 기본적인 권력구조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점 때문에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학원내의 교강사에 의한 성폭력, 선후배 친구 사이 성폭력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에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폭력을 근절하는 투쟁을 학내에서부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꿔내는 운동까지 힘차게 해 나갈 것입니다.

▷ 자치규약운동

선서! 우리 과는 성폭력 없는 과로 만들겠습니다!!!

과나 단대의 공동체 문화 속에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모피지, 농화, 새터, 신입생환영회,등 공동체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많이 있습니다.

과 단대 학우들이 성폭력을 근절해 내겠다는 의지를 모아서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한 약속을 만들고 이를 학우들 속에서 공유하고 개강총회 공간에서 함께 자기 과의 자치규약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학우들이 먼저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발로 뒹겠습니다.

▷ 반성폭력 프로그램 강화

학내 구성원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반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강제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 오리엔테이션 공간에서 이뤄지는 반성폭력교육, 교직원 교육을 내용성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당국을 강제해내겠습니다.

▷ 여성학 강의 즐겁게 하기

우리 학교에는 제대로 된 여성학 강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식상한 생물학 강의들이 아닌 실제 여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강의를 신설하겠습니다.

▷ 성폭력 규제학적 개정

현재 있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냥 만들기에만 급급하여 실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겁데기뿐인 학칙입니다.

현재의 규정은

- * 성폭력 적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보호의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자 치유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피해자의 안정에 관한 의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 * 학교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제반활동을 해야하는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 * 성윤리위원회 구성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여야 하며, 학교 행정측에서는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하고 예산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 가해자의 징계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일시 등이 명확히 정의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18대 총여학생회에서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에서 말한 대로 개정해 내기 위해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삼자협의회 공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내에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 월경페스티벌

월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론화 함으로 해서 월경에 대한 여학우들의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다. 월경하던 떠오르는 이야기들, 월경문화제를 통해서 여학우들이 월경하는 자신을 더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학우들을 위한 복지공약★

▷ 여학생휴게실 관리권이양

여학생휴게실을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여학우만의 편안한 쉼터로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학생휴게실의 관리권을 교학과로 이양하여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여학생휴게실의 이불교환, 여러 가지 기기 확충으로 환경을 개선 하겠습니다.

▷ 생리대 자판기 확충

갑자기 생리가 시작되어 당황한 적 많으셨죠???

생리대 자판기가 많이 없어서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생리대 자판기를 확충해서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약 구비

▷ 예대 가로등 설치

예술대로 오르는 길 내려가는 길 많이 어둡고 무서우셨죠???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있는 이곳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여학우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산 확장

비오는 날 총여학생회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것 알고 계시죠???
너무 늦게 오셔서 헛걸음 하셨다고 실망하신 분 많으셨죠???
내년에는 더 많은 우산을 구비해서 학우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여왕되다.

취업의 문 앞에서 불안해하시는 민족동아 여학우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취업하셔서 성공하신 멋진 선배님들을 모셔서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